

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

주체 111 (2022)년 9월 8일

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!
존경하는 상임위원장
동지, 그리고 최고인민회의
부의장동지!
방청자 여러분!
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
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소
집된 이번 최고인민회의
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
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
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
가지는 법적무기들을 마련
하였습니다.

특히 전체 조선인민의
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
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
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
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
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
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.
이로써 국가와 인민의
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
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
할수 있는 정치적, 제도적
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
의 중대한 역사적위업이
달성되었습니다.

나는 우리 혁명앞에 조성
된 현 국면과 정세발전추이
로 보나 공화국핵무력의 사명
으로 보나 매우 중대한
역사적시기에 핵무력정책이
법화되었다고 인정하면
서 전체 대의원동지들이 가
장 책임적인 시각에 가장
적절한 결정을 만장일치로
채택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
생각합니다.

아울러 인민의 대표로서 국
가주권을 반석같이
다지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
제시한 투쟁목표를
실현하는데 힘과 지혜와 열정을
다하고있는 대의원
동지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
를 드립니다.

동지들!
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
기 위한 사회주의건설
은 높은 단계에로 심화될수록
제국주의의 더 큰
도전과 반항에 부딪치게 됩니
다.

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, 생
존수단으로 삼고있
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전
쟁의 근원은 종식될
수 없으며 력사발전에서 자
주와 평화를 지향하는
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
립과 투쟁은 불가피한
것입니다.

그러므로 사회주의의
즐거워진 발전과 번영을 이
룩하는데서 어떠한 침략위협
도 통할수 없는 조건과
환경을 마련하는것이 중
차대하고 사활적인 요구로
나서며 이를 실현하자면 적
들을 압승할수 있는 절대
적힘을 가지고있어야 합
니다.

이미 우리 공화국은 반
제투쟁의 성세, 사회주의
강경보루로서 온갖 적
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
크떡하지 않고 자기의
시간표에 따라 자위적국방
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
미제가 일방적으로 핵위협
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
장했습니다.

그리고 오늘은 핵무력
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
전고착시키는 력사적대
업을 이룩하였습니다.



이번에 국가핵무력정책을
법화한것은 공화국정
부의 자주적결단과 결
결한 국권수호, 국익
사수지지에 대한 더욱
뚜렷한 과시로 됩니
다.
우리의 핵무기는 건
국초기부터 세계최초
의 핵사용국이며 세
계최대의 핵보유국인
미국의 핵공갈을 받
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
기의 존엄과 안전을
굳건히 수호하고 핵전
쟁위험을 완전히 제
거하기 위하여 수십
년간의 간고하고 피
어린 투쟁으로 마련
한 억척수단, 절대병
기입니다.
지금 미국은 우리의
핵과 자위력강화가
세계평화와 지역의
안전에 중대한 위협
으로 된다는 얼토당
토않은 꾀변으로 국
제무대에서 우리 공
화국정권을 《악마
화》해놓기 위한 여
론퍼트리기에 집착하
면서 우리를 심리적
으로, 물리적으로 제
압하기 위해 추종
세력들까지 총발동
한 사상최악의 제재
봉쇄와 정치군사적
압박에 집요하게 매
달리고있습니다.
미국이 노리는 목
적은 우리의 핵 그
자체를 제거해버리
자는데도 있지만
궁극적으로는 핵을
내려놓게 하고 자
위권행사력까지
포기 또는 려세하
게 만들어 우리
정권을 어느때든
붕괴시켜버리자
는것입니다.
미국은 사상최악
의 제재봉쇄로써
우리에게 간고
한 환경을 조성하
고 진맥이 나게
하며 우리로 하여
금 국가의 안전
정발전환경에
대한 불확실성과
위험을 느끼
게 함으로써
우리가 핵을
선택한 대가
에 대하여
생각해볼
게 하고 당
과 정부에
대한 인
민들의 불
만

을 유발, 야기시켜
우리 스스로
핵을 내려놓
지 않으면
안되게 만
들어보자고
기도하고있
습니다.
천만에!
이것은 적
들의 오만
이고 오산
입니다.
백날, 천
날, 십년,
백년을 제
재를 가해
보라 합
시다.
지금 겪고
있는 곤난
을 잠시라도
면해보자고,
에둘
아가자고
나라의 생
존권과 국
가와 인
민의 미
래의 안
전이 달
린 자위
권을 포기
할우리가
아니며
그 어떤
극난한
환경에
처한다
해도 미
국이 조
성해놓
은 조선
반도의
정치군
사적형
세하에
서, 더우
기 핵적
수국인
미국을
전망적
으로 견
제해야
할 우리
로서는
절대로
핵을
포기할
수없습
니다.
우리 인
민은 미
제국주
의자들
의 상투
적인 설
교와 꾀
변과 제
재압박,
군사적
위협에
못이겨
잘못된
선택으
로 비참
한 말로
를 겪고
비극적
인 마
감을 맞
은 20세
기, 21세
기의 수
많은 력
사의 사
건들을
잘 알고
있습니다.
우리 세
대는 저
하나의
안락을
찾기 위
해, 직면
한 고생
을 피하
기 위해
적들의
간고한
설교와
끈질긴
압박에
못이겨
우리 공
화국정
권과 후
대들의
안전을
담보하
는 핵을
대부로
개선했
는 가
시적인
경제
생활환
경을 추
구하지
않을것
이며
천신만
고한대
도 우
리는 자
기의 선
택을 바
꾸지
않을것
입니다.
하여
공화국
발전사
에 가장
위대하
고 강인
한 세대
로 남아
야 합
니다.

미국은
절대로,
절대로
우리 국
가를 상대
로 저들
의 기도를
실현할수
없으며
우리 인
민의 선
택을 바
꾸놓지
못할것
입니다.
시간이
과연 누
구의 편
에 있습
니까.
바쁘면
지금 적
들이 바
빠났지
우리는
바빠들
것 하나
도 없으며
우리는
얼마
든지 지
금의 이
환경하
에서
우리의
힘으로,
우리 식
대로 살
아나갈
수 있습
니다.
미국의
야수적
인 대
조선
적대시
정책으
로 하여
우리 인
민에게
들쭉위
치는 고
통의 시
간이 길
어지는데
준비
태하여
우리의
절대적
힘은
계속 가
속적으
로 강
화되고
있으며
그들이
부닥치
게 될
안보위
험도 정
비태하
게 증
대되고
있습
니다.
공화국
핵무력
은 우리
국가에
대한 미
국과 그
추종
세력들
의 엄중
한 정치
군사적
도발을
억제하
고 전망
적인 위
협을 관
리하는
데서 자
기의 중
대한 사
명을 책
임적으
로 수행
할것
이며
바로 이
에 대하
여 오늘
국범으
로 명
기하였
습니
다.
자주와
자존, 인
민의 운
명을 제
일 귀중
히 여기
고 그에
위해로
되는 적
대행위
를 절대
로 용서
치 않
으며
한다면
무조건
해내
교야마
는 우리
공화국
이기에
이렇듯
국가핵
무력정
책을
법화하
는 담
대한
정치적
결단을
내릴수
있을것
입니
다.
세계는
패권주
의가 더
욱 살
판치는
오늘날
진정
한 자
주강국
을, 정
의로운
국가란
어떤
나라이
며 악의
제국
미국에
당당히
맞서나
가는
우리
공화국
의 불가
항적
적기
상이
얼마나
강한가
를 다시
금 툭
툭히
알
게
될것
입니
다.
동지들!
두자
리의
권총으
로부터
시작된
우리
혁명
이 오늘
에 이
르기까
지 걸어
온 간고
하고도
기나긴
려정을
돌
이켜보
느라
그 길
에 응
축된
만단
사연
들이
마
차와
마
음이
뜨거
워짐
을
금
할
수
없
습
니
다.
성
과
는
실
로
거
대
해
도
전
체
인
민
들
의
아
름
없
은
지
지
성
원
과
고
귀
한
피
땀,
형
언
할
수
없
은
고
생
과
바
꾼
것
이
기
에
더
욱
더
무
겁
게,
소
중
하
게
느
껴
집
니
다.
사
실
제
국
주
의
련
합
세
력
과
단
독
으
로
맞
서
가
장
야
만
적
이
며
황
포
한
제
재
압
박
행
동
을
짓
부
시
며
공
화
국
핵
무
력
을
건
설
하
고
전
투
태
세
를
완
성
한
다
는
것
은
모
진
고
통
과
극
난
을
감
수
하
고
견
어
야
하
는
생
사
판
가
리
의
결
사
정
이
었
습
니
다.
그
만
금
사
랑
하
는
우
리
인
민
들
과
아
이
들
이
허
리
띠
를
더
조
이고
배
를
더
뽀
야
야
하
고
귀
중
한
우
리
의
모
든
가
정
들
에
엄
청
난
생
활
안
이
조
래
되
지
않
으
면
안
되
었
습
니
다.

(2면으로 계속)